

제주해녀에코뮤지엄 조성연구 사례¹⁾

윤용택 (제주대)

I. 들어가는 말

제주해녀는 세계적으로 희소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다. 하지만 제주해녀가 고령화 되고 그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구좌읍 세화리, 상도리, 하도리, 종달리 등의 해녀박물관 인근지역은 불턱, 갯담, 돈짓당 등의 해녀생태유산이 제주도내에서 가장 많이 남아있고, 제주해녀의 밀집지역으로 고유한 해녀공동체문화가 잘 남아 있다.

구분	세화리	상도리	하도리	종달리	계	기준년도
면적(km ²)	19.28	9.55	7.37	16.99	53.19	2000
세대(수)	1014	168	821	400	2043	2012
인구(명)	1983	460	1945	1260	5648	2012
해녀(명)	20	-	299	132	451	2011
	20		268	124	412	2015

이 지역은 1931~1932년에 있었던 해녀항일운동의 발상지이고, 별방진, 환해장성, 해녀항일기념탑, 발담, 소금밭 등의 인문유산과 문주란자생지, 황근자생지, 철새도래지 등 자연유산이 풍부하다. 그리고 이 지역은 다음과 같은 생산물들이 있는데, 이들을 활용하여 제주문화를 대표하는 해녀생태유산의 가치를 증대하고 전승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분	세화리	상도리	하도리	종달리
물질 (채취)	소라	-	천초	천초
	-	-	소라(오분자기)	소라
	-	-	성게	성게
	-	-	툇(도박)	툇
밭일	당근, 감자, 무우			

따라서 이 지역의 해녀생태유산의 가치를 증대하고 전승하기 위해 해녀에코뮤지

1) 이 연구는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용역(2012.7.2.-2013.2.25.) 의뢰한 “해녀생태박물관 조성연구”(연구책임자: 윤용택 / 연구원: 고영자, 안미정 / 연구보조원: 전은자, 양성필, 김동수, 강윤복) 보고서를 발췌 보완한 것이다.

업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이 자료 보존 중심에서 지역주민 참여와 방문객 체험 중심으로 바뀌면서, 에코뮤지엄(Ecomuseum)이 새로운 관광패턴의 화두가 되고 있다. 에코뮤지엄은 자연, 문화, 생활 등이 어우러져 지역주민이 사는 지역 자체가 박물관이고, 지역의 자연환경, 고유문화, 생활방식 등을 그대로 보존 계승하면서 이를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박물관이며, 주민이 직접 박물관 운영에 참가할 뿐 아니라 방문객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에코뮤지엄은 '특정 문화권을 구성하는 지역사람들의 생활과 자연, 문화, 생활 유산의 발전과정을 연구하고, 그 유산을 현지에 보존하고 활용함으로써 해당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야외박물관'이다.

그러한 에코뮤지엄의 개념과 정신에 비춰볼 때 해녀생태유산이 풍부하게 남아있는 세화리, 상도리, 하도리, 종달리 등 인근 구좌 동부지역은 해녀에코뮤지엄으로 최적지이다.



해녀에코뮤지엄의 공간적 범위

해녀에코뮤지엄 조성연구에서는 각 지역적 특성들을 살려 7개 가름, 즉 오일장가름, 해녀박물관가름, 별방진성가름, 토끼섬가름, 철새도래지가름, 지미봉가름, 소금밭가름 등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가름'은 제주어로 '한 마을 안에서 작은 단위로 구분한 동네, 한 마을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구역'²⁾ 또는 '마을 안의 구분된 거리'³⁾를 뜻하는 말이다. 그리고 각 가름의 해녀생태유산을 탐방하기 위해 주요 포

2) 제주특별자치도(2009),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3) 송상조 엮고 지음(2008), 『제주말큰사전』, 한국문화사.

인트를 연결하여 7개 가름길⁴⁾, 즉 해녀항쟁길, 숨비소리길, 돌담길, 문주란길, 철새길, 땅끝길, 불턱길을 조성하였다. 이 길들을 탐방하게 되면 해녀에코뮤지엄의 자연유산, 문화유산, 생활유산 등의 해녀생태유산을 자연스럽게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해녀에코뮤지엄은 기존 해녀박물관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기준	해녀박물관	해녀에코뮤지엄
전시유물	수집된 유물	자연·문화·생활 유산
전시장소	해녀박물관 (건물)	해녀박물관 인근지역 (7개 가름)
전시대상	관람객	지역주민/방문객
전시방법	전시	체험 및 입체적 소통
학문영역	미술사·박물관학	융·복합적 학문
인적자원	전문학예사	전문학예사, 지역주민
관람료	유료	무료 및 유료(체험료, 임대료, 숙박료 등)

해녀박물관과 해녀에코뮤지엄의 차이

해녀에코뮤지엄을 조성하여 얻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해녀생태유산으로 해녀문화의 가치를 증대하고 이를 보존 전승하기 위한 기틀이 된다. 2) 삶의 현장에서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해녀문화의 대표적인 명소의 상징성을 획득한다. 3) 해녀생태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 생산물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한다. 4) 해녀에코뮤지엄은 다른 지역에서도 해녀생태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바람직한 새로운 대안모델이 된다.

하지만 해녀에코뮤지엄은 '해녀'를 테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녀에코뮤지엄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녀'가 있어야 한다. '해녀'가 사라진 이후의 해녀에코뮤지엄은 그만큼 의미가 퇴색되게 마련이다. 현재 제주 해녀가 이미 고령화 되어 있고, 그 수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해녀에코뮤지엄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녀'수를 유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4) 제주에서는 '길[路]'을 '질'이라 하고, '마을 길'을 제주어로 '가름길'이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2009),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국내에는 아직 해녀에코뮤지엄 조성을 위한 적절한 모델이 없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해녀에코뮤지엄 조성연구를 위해 일본 아사히마치에코뮤지엄, 전남 무안 용산마을(주민참여생태마을), 완도 청산도(슬로시티) 현장 등을 답사하였다. 해녀에코뮤지엄은 '해녀'를 테마로 지역의 자연·문화·생활이라는 복합 유산을 형식은 현장성과 체험성을 결합하여 삶의 리얼리티를 생생하게 교감할 수 있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해녀에코뮤지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연유산의 보전, 문화유산의 복원, 주민참여 및 주민소득 창출, 체험마을, 생태관광, 마을만들기 등 각 분야의 모범사례들을 학습해서 해녀에코뮤지엄의 독창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녀에코뮤지엄은 유물, 기록 등 자료 보존 중심의 기능을 넘어서 지역 주민 스스로 삶의 긍지를 느낄 수 있고, 그들의 실질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방문자들은 현지 체험과 다양한 문화적 소통을 통해 삶의 현장성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녀에코뮤지엄 조성 후보지인 세화리, 상도리, 하도리, 종달리 등을 여러 차례 현장 답사하고, 기존 문헌 및 지역주민 채록을 통해 해녀생태유산(자연·문화·생활유산)을 조사하였으며, 지역주민(이장, 어촌계장, 해녀회장, 해녀, 일반주민) 의견 수렴하였다.

II. <해녀에코뮤지엄> 조성 계획안

1. 해녀에코뮤지엄의 개요

'에코뮤지엄(Ecomuseum)'은 한마디로 지역사회가 그들의 뿌리와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으로 일궈가는 열린 박물관이다. '에코뮤지엄'의 정의는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되어왔다. 현대적 개념의 에코뮤지엄의 정의는 앙리 리비에르(G. H. Rivière)에 의해 시도되었고, 오늘날 전 세계 학자들에 의해 인용되고 있는데, 다음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에서 발표한 '에코뮤지엄의 발전적 정의'이다.

에코뮤지엄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전문가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은 개개인의 열정과 지식, 자

신들만의 접근방법을 가지고 에코뮤지엄에 참여한다. 에코뮤지엄은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로서 지역주민들 스스로 지역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고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산업, 문화 등을 소개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들 스스로 지역에 대해 자긍심을 찾아가는 것이다. 에코뮤지엄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표현한다. 인간을 자연환경의 일부로서 해석하고 전통사회 또는 산업사회가 변화되어 온 모습들을 잘 보여준다.⁵⁾

해녀에코뮤지엄은 '해녀'라는 테마를 내세우되 해녀생태유산, 즉 해녀와 관련된 자연·문화·생활이라는 복합적 내용을 현장성과 체험성이라는 형식에 담아내어 삶의 리얼리티를 생생하게 교감할 수 있는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해녀에코뮤지엄은 지역주민, 행정기관, 연구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의 해녀생태유산 즉, 해녀와 관련된 자연, 문화, 생활 유산을 발굴 보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교육, 홍보, 전시, 관람, 체험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적 체계이다.

해녀에코뮤지엄은 해녀생태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면서 주민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제주의 독특한 해녀생태문화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녀에코뮤지엄은 인간 중심적이고 개발지향적인 삶의 방식이 초래한 생태계 파괴 및 환경위기에 대해 지역적 차원에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인류 미래에 대한 거시적 모델을 제시한다.

해녀에코뮤지엄은 공동체적 삶을 구성하는 자연마을의 지역을 중심으로 세화리, 상도리, 하도리, 종달리 인근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선정하였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7개 가름, 즉 오일장가름, 해녀박물관가름, 별방진성가름, 토끼섬가름, 철새도래지가름, 지미봉가름, 소금밭가름 등으로 나누고, 각 가름의 해녀생태유산을 탐방하기 위해 주요 포인트를 연결하여 7개 가름길, 즉 해녀항쟁길, 숨비소리길, 돌담길, 문주란길, 철새길, 땅끝길, 불턱길을 조성하였다. 7개 가름의 해녀생태유산은 7개의 가름길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해녀에코뮤지엄의 7개 가름

2. 하도리 인근 지역의 4 가름

5) Georges Henri Rivière, "The Ecomuseum - an evolution definition," *Museum*(UNESCO), p. 148.



여기서는 7개 가름 가운데 하도리 인근 지역의 4 가름, 즉 해녀박물관가름, 별방진성가름, 토끼섬가름, 철새도래지가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해녀박물관가름






이 가름은 해녀박물관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신앙과 생업문화, 제주해녀의 역사와 해녀문화를 함께 볼 수 있는 곳이다. 해녀박물관의 안팎을 고루 볼 수 있어서 살아있는 해안생태유산을 학습, 체험할 수 있다. 특히 하도리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면수동 주민들의 성소라 할 수 있는 삼성당, 너른 조간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갯담, 출항하여 끝내 돌아오지 못한 가족의 넋을 기리며 바다를 바라보는 언덕 위 비석들 등 신앙, 생업, 역사가 함께 어우러져 제주해안의 생태, 역사,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에 더 없이 좋은 공간이다.

(1) 해녀생태유산

구분	해녀생태유산			특징
	자연	문화	생활	
 순비기나무	0			갯바위에서 자란 끈질긴 순비기나무는 여름 고운 향을 가진 연보라색 꽃으로 피어난다. 그 잎과 가지, 열매는 약재나 차, 또는 목욕물 향료로 쓰이기도 한다. 순비기나무는 사질 토양에서도 잘 자라므로 이 식물을 활용한 주민소득원 창출을 모색해 볼만하다.
 푼낭알(섬팡)	0			푼낭(푼나무)는 여름철 태풍과 겨울 찬바람에도 강한 나무이다. 마을 안 교차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푼나무는 정자로 이용되었다. 더운 여름날 푼나무 그늘에서 마을사람들은 더위를 식히고 담소를 나누기도 하였다.
 용문사		0		바닷가에 위치한 용문사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오층석탑과 해수관음상이 대웅전 앞에 나란히 서 있다. 절 입구에는 용문사의 건립역사와 함께 여러 공덕비들이 세워져 있어 마을사람들의 신앙심을 엿볼 수 있다.
 환해장성		0		해안선을 따라 돌담을 쌓아 올린 장성은 긴 세월을 걸쳐 축성되어 되어 왔다. 고려 말 삼별초의 진입과 조선시대 왜구의 침입과 영국 이양선 등 외부 세력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았다. 김상헌의『남사록』(1601)에서는 환해장성을 ‘탐라의 만리장성’이라 하였다.
 여씨할망당		0		“여씨할망당” 또는 “금산당” 이라고도 하는데, 면수동 마을 한가운데 있는 솟은 듯 움푹 패인 “금산”에 자리한 당이다. 지역주민들의 정성을 모아 보존해 온 여씨할망의 신위가 당집 안에 모셔져 있다.

삼싱당				
		0		불턱은 돌을 쌓아 해녀들이 바람을 막고 몸을 녹이던 곳이다. 해안도로에서 바닷가로 이어지는 조간대 위에 세워져 있으며 중앙에는 불을 피울 수 있도록 작은 돌로 화덕을 만든 불턱은 해녀 공동체의 산실로 상징되는 곳이다.
서동불턱				
		0		용문사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걸다보면 길 아래에 콘크리트로 지어진 시설 밑에 샘솟는 용천수이다. 현재 보존양태가 그리 양호한 것은 아니나 용천수 체험장과 해안 환경정화 활동을 결합한 학습활동을 고려할 수 있다.
만물 (용천수)				
		0		제주에는 각양각색의 모양을 이룬 해안지형과 밀물과 썰물의 차를 이용한 어로방법이 전해져 왔다. 이를 ‘갯담’ 또는 ‘원’이라 불러 왔는데 서문동 갯담은 그 형태를 잘 볼 수 있는 곳이다. 갯담은 지역주민의 공동자산으로 이를 이용, 보존함에 있어서도 공동체 문화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서문동 갯담				
		0		제주 발담은 열기설기 쌓아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서 태풍에도 쓰러지는 법이 없다. 제주사람들은 화산지형의 땅을 농경지로 만들기 위해 발담의 돌들을 담으로 쌓았다. 발담으로 이웃 밭과 구분할 수 있고, 우마의 침입을 막으며, 방풍의 기능도 하였다. 돌담밭은 2013년 1월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발담길 (農路)				
		0		면수동 경로회관 옆에 있는 공동창고는 동네주민들이 농작물과 해초를 거둬들인 후 보관하던 곳이다. 지금은 개인 소유이지만, 이러한 동네별 공동창고는 제주 마을이 동네별로 작은 조합을 형성 공동작업 공동분배하던 역사를 보여준다. 지역 근대유산으로 삼기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공동창고				

(2) 숨비소리길 (4.4km)

해녀들은 물속에 오래 숨비다(잠수하다)가 물 위로 올라오면 숨이 가쁜 나머지 ‘호이호이’ 휘파람 소리를 낸다. 그것을 이름 하여 숨비소리이다. 해녀들의 고단한 생활을 기억하고자 해녀박물관가름을 탐방할 수 있는 가름질을 ‘숨비소리길’이라 하였다.

해녀박물관 - 모래동산 - 삼싱당 - 면수동마을회관 - 팽나무정자 - 돌담길 - 서문


동북지회관 - 갯담길 - 모진다리불턱 - 환해장성 - 조간대 - 용문사 - 해녀박물관

2) 별방진성가름






이 가름은 유서 깊은 별방진성이 있어 제주의 방어체계를 살필 수 있는 곳이다. 옛 별방진성의 모습과 복원된 성체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돼 있고, 그 지역들이 이용하던 식수터와 밭의 유기적 관계가 돋보이는 지역이다. 특히 경작지를 보호하는 밭담은 제주 돌문화의 아름다운 특징을 보여주는 유산으로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 이 지역내 비석거리는 비극적인 해양문화를 잘 보여주는 곳으로 제주 근현대의 질곡의 역사를 보듬고 있는 곳이다.

(1) 해녀생태유산

구분	해녀생태유산			특징
	자연	문화	생활	
		0		별방진 서문에 있는 치성으로 마을의 제일 높은 지대이다. 이곳에서는 남서쪽으로 한라산이 훤히 보이고 하도리 해안, 별방진성내 마을이 잘 내려다보인다. 별방진성의 모양과 옛 성담의 아름다움, 해안, 마을, 주변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서문 망대				
		0		해안의 진성으로 제주도 기념물 제24호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별방진은 둘레 960m의 타원형 모양의 성으로 전체 지형은 한라산 서남 방향으로 높으며 북쪽으로 낮은 남고북저(南高北低)의 형태이다.
별방진성				
		0		별방진의 옛 성담. 현재 복원된 별방진성 서쪽에 위치한다. 성담을 잣, ‘잣담’, ‘잣성’ 이라고도 한다. 이 별방진성 옛 성담은 잣백과 같이 촘촘히 쌓은 겹담 양식의 돌담으로 웅장한 괴체감(塊體感)을 느끼게 한다. 제주 돌담의 자연미를 느끼게 하는 성담으로 현재 복원된 별방진성과 비교할 수 있는 곳이다
옛 성담				
		0		발담은 제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돌담 군(群)으로 경작지의 경계를 구분한다. 발담 조성의 기원은 고려시대 판관 김구가 제주 민중의 민원을 들어준 것에서 유래하며, 제주 돌담밭은 2013년 1월 국가농업유산 2호로 지정되었다.
발담				
		0		삼신할망당은 하도리 본향으로 하도리 신동 서쪽 ‘호추막르 당동산’ 기슭에 위치하는데 비석거리 사이길로 약간 내려가면 시멘트 건물로 된 당이 있다. 이 삼신할망당은 하도리 면수동을 제외한 서동, 신동, 굴동, 동동, 창흥동 주민들이 다니는 당이다.
삼신할망당				
		0	0	신동 서쪽 ‘호추막르 당동산’ 기슭에 있다. 약간 오르막의 포장된 도로 양쪽으로 약 20여기의 비석이 즐비하다. 이 비석거리는 태평양 전쟁 때 강제 징용으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한 영혼, 43사건 때 성산포 해안에서 학살된 영혼, 한국전쟁, 남영호침몰, 외항선과 관련하여 실종된 영혼을 위무하기 위해 세워진 비석들이다.
비석거리				
		0	0	마을 안길은 비교적 좁은 길인데 돌담의 선을 따라 집 사이로 발담이 이어져 있다. 서동은 김해 김씨와 제주 부씨에 의해 13~14세기에 설촌되었다고 한다. 이 서동은 예전에 석카름 ‘너븐드리 동네’ 라고 불렀다고 한다. 굴동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위치한다고 하여 석카름이라고 했다.
서동 마을길				
		0		각시당은 신동 해안 해안도로 나지막한 빌레 동산에 위치한다. 현재 당은 시멘트로 바른 사각형의 돌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각시당의 신명은 ‘여리불도삼시선’, ‘갯굿용녀부인’ 으로 어선과 잠녀를 관장하는 신이다. 예전에 해녀굿을 할 때는 본향당에서 삼신할망의 신체를

각시당				모셔다 하였고, 요즈음은 요왕맛이를 개별적으로 한다.
 환해장성		0		1270년에 김수(金須) · 고여림(高汝霖)이 삼별초군을 막기 위해 제주도 해안가 약 300여리를 돌로 쌓았고, 1845년에 목사 권직(權稷)이 다시 보수해 쌓았다. 오늘날은 해안도로 개발로 환해장성이 묻힌 곳이 많고 복원된 곳도 원형과는 다르게 돼 문화재 보존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요구되고 있다.
 한개창		0	0	한개창은 별방진성과 바로 인접한 포구로 ‘큰 포구’라는 뜻이다. 별방진성에 유용한 포구이기는 하나 북동풍이 거세지면 포구 입구로 파도가 넘쳐 별방진성 동쪽 부분이 피해를 보기도 한다고 한다.
 알짓물	0	0	0	『탐라순력도』에는 알짓물을 ‘호수(湖水)’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을 사람들은 ‘펼낭’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곳에서 단물이 솟아나온다. 이 물은 성안 사람들의 식수로 쓰였는데, 바다에서 흘러드는 짎물이 단물과 섞이면서 민물장어와 송어가 많이 잡혔다고 한다. 1970년 전후로 이 호수를 매웠다가 후에 복원하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별방진성 인근서문동 해안가에는 들렁물이 솟아나며 가뭄으로 서동의 너븐드리물이 고갈되면 이 물을 식수로 이용했다고 한다.
 들렁물				
 갯담	0	0	0	해안에 작은 여가 형성된 곳을 서로 이어 막은 갯담은 바다 방향은 완만하게 만들고 마을 방향은 수직으로 만들어 고기가 들어오기는 쉬우나 썰물이면 막혀서 못 나가게 만든 겹담 구조의 돌그물이다. 원담의 형태는 ㄱ자형, 一자형, ㄷ형 등 다양한 모양이 있다. 갯담은 지역마다 원, 원담, 개라고도 불렀다.

(2) 돌담길(4km)

별방진성 가름을 탐방할 수 있는 가름길은 성담, 발담, 갯담 등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돌담길’이라 명명하였다.



서문망대 - 옛성담 - 발담 - 비석거리 - 삼승할망당 - 산담 - 발담 - 마을안길 - 신동포구 - 각시당 - 환해장성 - 들렁물 - 별방진성 - 성안통물 - 알짓물 - 갯담





3) 토끼섬가름



토끼섬(란도)은 문주란 자생지로 천연기념물 19호로 보호받고 있다. 이곳은 쿠로시오해류에 의한 식생의 전래를 이해할 수 있는 곳이며, 해안을 배경으로 문주란이 피는 경관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곳이다. 토끼섬 가름에서는 굴동포구, 웃개(염습지), 진모살 해변 등에서 우도, 일출봉, 한라산 등을 바라보는 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다. 그리고 마을안길에서는 역사가 깊은 하도초등학교와 보존가옥 등이 있어서 다양한 해녀생태유산을 고루 감상할 수 있다.

(1) 해녀생태유산

	해녀생태유산			특징
	자연	문화	생활	
 보존가옥(예시)		0	0	종가집 규모의 민가로, 안팎거리의 공간구조와 개인 방앗간과 쇠막이 잘 보존되어, 제주도의 가족제도와 민가구조를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굴동포구		0	0	굴동포구는 문주란섬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발담이 펼쳐져 있어서, 자연경관과 생산활동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옛 포구이다. 현재는 어로활동이 중단된 포구이지만, 갯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가 많은 화산지형을 활용한다면, 체험어장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

 <p>토끼섬</p>	0	0	<p>지역주민들은 토끼섬(난도)을 ‘난들여’라고 부른다. 토끼섬에서 자생하고 있는 문주란은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흘러들어온 것으로 문주란의 식생은 해류의 연구에서도 중요한 식물이다. 굴동포구에서는 7-9월에는 하얗게 핀 문주란 꽃으로 뒤덮인 섬을 바라볼 수 있어서 경관적 가치도 높다.</p>
 <p>웃개(황근자생지)</p>	0		<p>해안도로가 웃개 바깥으로 만들어지면서, 해안도로에 의해 폐쇄되어진 웃개는 다양한 식물이 자생하는 습지가 되었다. 이곳에서는 황근을 비롯한 문주란, 순비기낭, 해녀콩, 큰비쭉, 모새달 등 다양한 식물을 관찰할 수 있다. 조간대의 다양한 식물을 한 곳에서 관찰할 수 있다.</p>
 <p>영등바당</p>	0	0	<p>영등바당은 갯담과 불턱 체험장소로 만들어졌다. 다소 인위적이기는 하지만, 해녀들의 물질과 해양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진모살 해변이 있어서 해양경관도 매우 뛰어난 장소이다. 현재 운영되는 무인카페를 더 활성화하여 생태길에서 중간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p>
 <p>발담</p>		0	<p>제주에서는 발을 개간하면서 나오는 돌을 이용하여, 발의 경계를 돌로 쌓았다. 발돌담은 제주의 농업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거친 바람에 맞서 억세게 살아온 제주인의 생활력을 보여준다. 돌담이 만들어낸 제주 농경지의 풍경은 경관적으로도 뛰어나다.</p>

(2) 문주란길(5.9km)

토끼섬가름을 탐방할 수 있는 가름질의 명칭은 토끼섬에 자생하는 문주란을 널리 알리고자 ‘문주란길’이라 이름하였다.



하도초교 - 하도리사무소 - 보존가옥 - 쉼터 - 문주란로 - 굴동포구 - 토끼섬 - 웃개(염습지) - 어촌체험(영등바당) - 진모살 - 어촌계 펜션 - 발돌담 - 동동복지회관 - 동동연못 - 하도리사무소


4) 철새도래지가름



하도리 철새도래지는 1940년대까지 '용항포'라 불리는 포구였지만 간척사업을 위한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물길이 막혀 형성된 습지이다. 바닷물과 용천수가 만나는 광활한 기수지역이어서 철새 먹이가 풍부한 까닭에 30여종의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가 되고 있으나, 아직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주변에는 철새 탐조대, 탕탕물과 서너랭이물 같은 용천수, 논으로 사용되던 갈대밭, 지미봉둘레길에서 보는 발담과 철새도래지는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1) 해녀생태유산

구분	해녀생태유산			특징
	자연	문화	생활	
 철새탐조대	0			철새도래지는 광활한 습지로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도요새류, 저어새 등 겨울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이다. 철새도래지 입구에 탐조대가 시설되어 있어 30여종의 철새를 관찰할 수 있다.
	0	0		철새도래지 지역은 제방이 있기 전까지는 용항포라는 큰 포구였다. 지형이 용의 목과 같아서 용목개라 부르기도 했다.

용항포				
	0			제방이 생기면서 바닷가 쪽으로 모래가 퇴적되어 조개가 풍부했던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해수욕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조개왓				
	0			예전에 탕탕물과 서느랭이물 등의 용천수는 지역주민들의 식수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간척지 논에 물을 공급하기도 하였다. 지금도 풍부하게 지하수가 용출되고 있어서 지친 길손들이 족욕을 하기에 적합하다.
용천수				
	0		0	본래 포구였던 곳이 간척사업을 통해 논으로 쓰이다가 버농사가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지면서 지금은 갈대밭으로 남아 철새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갈대밭				
		0	0	종달리 쪽에서 습지주변을 따라 지미봉 둘레길을 걷다가 발담길로 접어들면 화산회토로 이뤄진 밭과 용암을 이용한 돌담은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낸다.
발담길				

(2) 철새길 (5.3km)

철새도래지가름을 탐방할 수 있는 가름길은 '철새길'이다. 30여종의 겨울철새들이 서식하고 있어서 철새들을 관찰하기에 적합하여 붙인 이름이다.

창흥동조개왓 - 창흥동 해변 - 탐조대 - 탕탕물 - 탐조길 - 서느랭이물 - 금봉사 - 종달교차로 - 종달교회 - 신착개 - 지미봉둘레길 - 방조제

Ⅲ. 해녀에코뮤지엄 주요 시설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은 이러한 에코뮤지엄의 내용을 이해하고, 여행의 본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최소한의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해녀에코뮤지엄의 시설은 현재 해녀박물관을 기본 토대로 하고, 그 이외에도 방문자들에게 기본적으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과 적당한 숙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1. 숙박시설

본래 민박이라는 것은 전문 숙박시설이 아닌,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거공간에서 여유 있는 공간을 손님을 위해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다. 해녀에코뮤지엄의 숙박시설은 대규모 자본에 의한 대단위의 투자보다는 소자본과 저노동력에 의존해서 적정수입에 머무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박은 “적게 투자해서 적게 번다”는 태도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1) 민박집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박으로 활용할 경우는 제주도의 안팎거리의 주거공간구조를 감안하여, 안거리에는 주인이 거주하고, 밖거리를 민박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바람직하다. 최소한의 관리를 하고 주민과 긴밀한 접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숙박을 위한’ 숙박이 아닌, ‘생태적인 삶에 동참하는 숙박’으로서의 민박이 요구된다.

2) 보존가옥

민박을 위한 가옥도 전통적 삶의 모습을 공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현대인의 삶의 모습에 맞추다 보면 원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다. 때문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가옥을 정비하여 전통적인 삶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해녀에코뮤지엄의 기본적인 교육과 학습의 기능을 위해서 필요하다.

전통민가를 잘 보존하고, 이를 토대로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지역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전통민가는 민박 혹은 거주를 위해서 활용하기보다는 휴게시설의 개념으로 유도하여, 셀프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이 바람직하다.

2. 편의시설

1) 족욕쉼터

마을우물이나 용천수를 활용한 족욕쉼터는 걷기여행을 즐기는 체험관광의 형태에서 새롭게 가치가 부각되는 상품이다. 때문에 휴식을 즐기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족욕쉼터는 역시 방문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품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족욕쉼터는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나는 마을 안에 있는 기존의 폐우물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재 관리되고 있는 용천수를 활용하는 것이다. 옛 물 사용관행을 이해하고 쉬어가는 포켓공원의 역할을 하게 된다.

3) 전시매장

전시매장은 해녀에코뮤지엄의 다양한 정보를 상설 전시하고, 주민들이 상품화한 물품들을 홍보 및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민박 가옥이나 각 가름판매장 등의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고, 체험공간이 있는 영등바당 인근의 무인 카페와 연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시매장은 단순한 판매상품을 진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녀생태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방문자가 보고, 듣고, 먹은 것들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4) 특화식당

특화 식당은 해녀에코뮤지엄의 주민들에 의해 생산된 특산물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음식과 차 종류를 가지고 운영하게 된다. 그리고 아침식당은 방문자를 위해 특화된 지역생산물을 이용한 메뉴를 이용하여 조식을 제공하게 된다. 가급적 아침식당은 민박집과 연계하여 아침식사를 특화된 지역음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 생산물을 가지고 메뉴를 개발하는 노력은 해녀에코뮤지엄과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3. 체험공간

체험을 통한 지식의 습득은 해녀에코뮤지엄의 학습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이미 하도리의 영등바당에서는 갯담, 불턱, 풍선(風船)등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가 이루어져 있다. 때문에 이러한 기존의 투자를 이용해서 더욱 가치 있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차후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체험 프로그램에서 차후 강화해야 할 부분은 '해녀물질체험 프로그램'이다. '해녀물질체험 프로그램'은 바다 수영장과 샤워장, 탈의장, 교육공간 등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영등바당의 체험공간과는 다른 별도의 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미 만들기', '돌담 쌓기'와 같은 지역의 삶을 배경으로 하는 해녀생태 체험 및 학습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는 지정된 보존가옥의 외부공간과 그 인근에 창고 형태의 개방된 공간을 활용한 다기능 학습 건축물이 필요하다.

체험 학습장은 평소에 공방으로 운영하면서, 통나무, 스티로폼 등 해양 잔존물을 활용하여 필요한 안내판 등을 친환경적으로 제작하고, 해녀에코뮤지엄에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 작업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IV. 해녀에코뮤지엄 운영 관리

1. 해녀에코뮤지엄 운영 방안

해녀에코뮤지엄의 성공적 운영은 생태적 삶이 현대인에게 새로운 사회모델로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녀에코뮤지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속적 연구와 생태관련 사업지원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이 반드시 요구된다. 그리고 해녀에코뮤지엄에서는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방문자들에게 정보의 전달, 각종 시설 정비 및 운영, 지역의 스토리의 수집 및 자료 축적의 역할, 연구책자의 발간, 전시관·자료관·세미나실 운영 등을 담당한다.

해녀에코뮤지엄의 조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해녀에코뮤지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검토해야 할 관련법으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연안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등이 있고, 참고해야 할 조례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라남도 무안생태갯벌센터 운영·관리 조례> 등이 있다.

2. 해녀에코뮤지엄 관리 방안

1) 홍보 방안

해녀박물관 정보는 주로 안내판, 리플릿,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으로 제공된다. 우선 안내판은 각 가름을 시작하는 곳에 설치하고 지도를 활용하여 해녀생태유산을 표기해야 하고, 거리, 포인트, 간단한 설명을 기술해야 한다. 로고, 상징 캐릭터를 이용하여 대중적인 친화력을 높여야 한다.

길을 찾을 수 있게 지시하고 유도하는 보조 안내판은 재활용이 가능한 한 생태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녀생태유산에 대한 설명을 병행하고, QR코드를 활용하여 스마트폰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안내판 재료는 부식에 강하고 해수에 강한 목재나 석재로 제작하여 내구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환경을 고려하여 주변 자연 경관과 최대한 친화력을 높여야 하며 디자인의 형식면에서 지형, 장소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해녀에코뮤지엄 조직도(안)



2) 해녀에코뮤지엄 주민학예사 제도

주민학예사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체험학습자와 관광객들에게 자기 고장에 대해 소개 및 설명하는 함으로써 기존 박물관의 큐레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 주민학예사는 가족의 경우 집주인이 될 수도 있고, 생업에 관해서는 생업종사자가 될 수 있으며, 해안생태에 관해서는 지역주민인 청년이나 노인 등 누구나 될 수 있다. 해녀에코뮤지엄에서는 이들을 일정교육을 받게 한 후 주민학예사로 등록하여 다양한 방문객의 수요에 맞게 연결, 조정,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해녀에코뮤지엄에서는 주민학예사 리스트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기초자료 제공 및 일정의 교육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녀'에코뮤지엄이라는 특성에 맞춰 각 동별 해녀회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주요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해녀에코뮤지엄에서 주민학예사의 육성과 지원을 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주민학예사는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의 비용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3. 네트워킹을 통한 경쟁력 강화

1) 해녀생태 관련 교육프로그램 연계

해녀에코뮤지엄의 운영은 지역 생태·문화와 관련한 초·중등학교의 방과후 또는 주말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함께 학생들의 애향심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이

해교육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지구환경에 대한 거시적 시각을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제주대학교에서도 해녀에코뮤지엄과 연계하여 해녀생태유산(자연·문화·생활)을 발굴, 조사, 연구, 체험, 해설 등을 할 수 있는 관련 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2) 해녀 관련지역과 네트워크 방안

2006년 해녀박물관의 개관과 더불어 박물관 주도하에 진행되어 온 학술심포지엄은 제주해녀뿐만 아니라 일본해녀문화 및 해양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주요한 계기로 자리잡아 왔다. 이 외에도 2011년에는 현재 중국에 사는 출향해녀를 초청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향후 출향해녀에 대한 종합연구의 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해외지역 및 한반도 연안에 거주하는 출향해녀들에 관한 현황과 생활상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제주도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V. 해녀생태유산 발굴과 활용방안

1. 해녀생태유산 발굴

1) 기존 해녀생태유산 현황

기존의 문헌과 자료 등을 통해 해녀생태유산, 즉 해녀의 물질과 발일에 관련된 자연, 문화, 생활 유산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정리한다.



해녀생태문화유산의 유형과 종류

구분	유산 명(名)	형태 및 유형			위 치		비고
		자연	문화	생활	해안	마을	
1	갯담 (-개소)			0	0		
2	오일장			0		0	
3	문주란 자생지	0					
4	철새도래지						
5	삼싱당		0	0		0	
6	각시당		0	0		0	
7	난드리여할망당		0	0		0	
8	생개납돈짓당		0	0		0	
9	한개창	0	0	0	0	0	
10	해녀탈의장(-개소)			0	0		
11	볼턱(-개소)						
12	해녀노래(-곡)			0			
13	천초	0		0	0		
14	포구(-개소)		0	0	0		
15	환해장성		0		0		
16	용천수(-개소)						
-							
1000							

해녀생태문화유산의 현황

2) 잠재 해녀생태유산 발굴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또는 가정)과 지역에서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유산들을 수집 정리하여 해녀생태유산으로 발굴한다. 차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자연이나 문화·역사 모든 분야의 유형, 무형의 것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추천에 의해 수집된 것을 기록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추천한 유산들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이해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경험적 지식이 축적된 것, 또는 지속적 계승의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지역의 자랑스러운 지역주민들에게 자긍심을 불러일으킨다.

유산추천은 주민들이 해녀에코뮤지엄에서 제작 배포한 카드를 작성, 추천할 수 있으며, 이를 받은 해녀에코뮤지엄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지역내외의 전문가집단이 발굴·조사하여 대장에 등록한다. 그것들은 사라져가는 문화에 대한 다양한 기록 보존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다양한 체험 및 학습자료로 개발·활용될 수 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박물관으로서 해녀에코뮤지엄은 주민 스스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견하는 공간이다.

3) 해녀생태유산의 관리

해녀생태유산은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고, 이를 주민과 전문가 집단으로 이뤄진 조사단이 검토하여 대장에 작성하고 해녀에코뮤지엄은 이를 기초로 보물의 홍보와 자료제작을 추진한다. 이들은 해녀에코뮤지엄의 자료로서 활용 가능하고, 해녀에코뮤지엄의 자료관에서 게시가 가능하며, 또한 주민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련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새롭게 발굴된 해녀생태유산들을 분석, 정리, 연구하여 자료로 보급하고 그 가운데 일부는 기존의 해녀생태유산과 연계하여 문화상품으로 개발하여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각시당과 해녀굿, 세시풍속, 음식, 순비기나무와 방석나무 등 다양한 소재를 중심으로 상호연관 속에 내용을 구성하여 해녀생태문화유산으로 재발굴한다.

2. 해녀생태유산 활용 방안

1) 해녀생태유산 활용 방향

해녀생태유산과 지역주민이 형성해 온 생활방식을 보존하려면 자연환경과 주민의 생활, 그리고 그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보고 배우며, 지속적으로 가치 확산 교육이 이뤄지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고 풍요로운 삶의 방식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여기의 핵심은 친환경적 생태공간의 조성과 생태적 경제적 순환을 지향함으로써 자연과 인간, 사람과 사람의 상호 공존의 관계를 찾아나가는 것이다.

분류	유산 명(名)	분야			발굴 형태			소득사업 연계
		자연	문화	생활	이야기	체험/관찰	자료제작	
생태와 생활공간	해초(툇과 천초)	0		0	0	0	0	0
	철새도래지	0					0	
	용천수 20 여 곳	0	0	0	0	0	0	
	밭담		0	0	0	0	0	
	한개창	0	0	0	0	0	0	
	갯담 10여 곳	0	0	0	0	0	0	
	-							
어업문화	물질	0		0	0	0	0	
	불턱 1여 곳	0	0	0	0		0	0
	물때 이름	0		0	0	0	0	
	바다밭 이름	0		0	0	0	0	
	돈짓당		0	0	0	0	0	
	소금밭	0	0	0	0	0	0	0
	-							
의례	삼싱당당굿		0	0	0	0	0	
	각시당 영등굿		0	0	0	0	0	
	지드림		0	0	0		0	

	-							
구비전승	해녀노래		0	0		0	0	
	본향당 설화		0	0	0	0	0	
	해녀속담		0	0	0	0	0	
	-							
역사와인물	해녀항일항쟁탑		0	0	0		0	
	별방진		0		0	0		
	환해장성		0		0	0	0	
	-							
시설	굴동 보존가옥	0	0	0	0	0	0	
	소금밭박물관		0	0	0	0	0	
	-							
음식	우무 간식	0		0		0	0	0
	당근 빼떼기	0		0				0
	몹국	0	0	0	0	0	0	0
	-							

해녀생태유산 활용과 지속화 모형

2) '해초'의 활용 사례

(1) 자료의 수집과 제작

- ① 마을어장에서 주민들이 채취하는 해양생물들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 ② 그 가운데에서도 해초(툇과 천초)의 생태조건과 생육에 대한 자료
- ③ 해양생태에서 해초가 하는 기능과 먹이사슬
- ④ 해초가 지역경제에 기여해 온 이야기 수집
- ⑤ 해초가 몸에 좋은 영양학적 연구 자료
- ⑥ 해초와 관련한 개인들의 이야기

(2) 구현방안과 기대효과

- ① 각급 학교의 야외 현장학습을 통한 교육
- ② 센터의 자료수집 활동을 통해 자료화
- ③ 해양생물로서 해초는 바다에 대한 간접적 학습 효과
- ④ 지역의 생태와 문화에 대한 이해 계기
- ⑤ 해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
- ⑥ 변화하는 해양생태계 참여관찰 및 모니터링에 활용
- ⑦ 관찰 자료들의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지역 기록으로 축적

3) '물질'의 활용사례

(1) 자료의 수집과 제작

- ① 지역어장에서 이뤄지는 어업의 형태, 방법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 ② 물질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관찰과 면담 자료 작성
- ③ 학생들의 학습자료로서 물질 관련한 다양한 책자발간
- ④ 잠수어업이 지역에 기여해 온 역사 이야기 수집
- ⑤ 지역 해녀아주머니와 할머니들의 살아온 이야기 수집
- ⑥ 물질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수집

(2) 구현방안과 기대효과

- ① 각급 학교의 야외 현장학습을 통한 교육
- ② 센터의 자료수집 활동을 통해 자료화
- ③ 해안지역 및 향토문화에 대한 이해
- ④ 잠수어업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와 이를 통한 창작화
- ⑤ 해양생태계에 대한 관심 고취
- ⑥ 수집자료들의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지역 기록으로 축적
- ⑦ 물질 및 해녀에 대한 자료 축적 및 보존 노력의 계기

3. 주민소득 창출 방안

지역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방문자를 대상으로 각종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녀생태유산과 지역생산물을 활용하여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이야깃거리 등을 제공하면서 지역공동체의식 함양과 더불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1) 해녀생태유산을 소재로 한 상품 개발

(1) 서적류

관광안내 책자 및 지도, 체험교재(해녀, 답사, 초가, 물질, 음식만들기 등) 개발하고, 해녀에코뮤지엄 7개 가를 대표하는 경관을 선정하여 지역홍보에 활용하고, 그림, 사진, 판화 등을 제작하여, 엽서세트, 달력, 컵그림, 마그네틱 스티커, 학용품(볼펜, 만년필, 연필, 노트, 지우개) 등으로 활용한다.

(2) 식품

지역 생산물을 이용하여 각종 요리 및 가공식품(당근빵, 우미, 톳무침, 김이죽, 지역특산 된장, 간장, 고추장, 해녀과자, 해녀아이스크림, 해녀호떡/호빵, 해녀음료, 전복라면, 성게국수, 고기국수, 회국수, 멜튀김 등 계절별 어류튀김, 고구마 튀김 등 농산물 튀김, 마을별 향토요리, 해산물과 농산물 가공식품, 풀 등)을 개발 판매하고,

여러 종류의 밥과 반찬을 개발하여 도시락카페를 운영한다.

(3) 문화상품 개발

전통공예, 지역특산물 가공을 통해 지역브랜(해녀생태보물 스티커, 해녀캐릭터 인형, 해녀노래CD, 야생화 이미지 이용 꽃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천연염색 제품, 가방, 물옷 디자인 활용 파우치, 열쇠고리, 조개껍데기(전복, 소라, 보말 껍데기 등)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한다.

(4) 폐자원 활용한 생태전시관

친환경녹색사업의 일환으로 폐자원 활용 상품 개발·교육자료로 활용하고, 해양쓰레기 전시관과 해양잔존물(통나무, 부표, 페트병) 등을 활용한 상품 전시 및 판매한다.

2) 해녀에코뮤지엄과 연계한 수익모델

(1) 체험가옥 운영

지역의 가옥을 선정(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하여 제주향토음식 만들기, 전통공예품 만들기 등의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문자가 체험했던 것을 시식하고, 가져가고,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박 및 체험 겸용가옥(다용도가옥), 민박가옥, 체험가옥, 판매가옥 등으로 구분하고, 숙박인 경우 아침식사를 제공하도록 한다. 예) 원담 체험, 우미 만들기, ... 등.

(2) 카페테리아 운영(손청거리, 쉼팡)

지역의 가옥(임대 형식)을 선정하여 지역(현지)에서 주민이 직접 제조한 각종 간식류와 음료를 판매하여 방문객이 잠시 요기를 채우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테이크아웃이 가능하도록 한다. 예) 당근빵, 조릿대차, 꾸지뽕차, 굴피차, 건조과일, 개역(미숫가루), 김밥, 아이스크림, 커피, ... 등.

(3) 아침식사 전문식당 및 아침시장 운영

지역의 가옥을 선정하거나 해녀박물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방문객이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아침식사 후에 계절별 지역 생산물 및 그 가공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3)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안)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소득사업을 지향하되, 지역주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의 이익 추구를 원칙으로 한다.

(1) 전통가옥 민박 운영

빈집 및 민박 운영희망자 수요 파악 후 목록을 작성하고, 빈집 개.보수를 지원하며, 관리지역의 빈집과 기존 가옥의 남은 방을 활용하여 소득사업 모색한다.

(2) 지역상품의 생산 및 판매

동별 부녀회 또는 노인회와 자영업을 통해 해녀 및 지역 생태유산을 모티브로 한 지역공예품 생산하여 판매한다.

(3) 염장식품 제조 및 판매

각 가정에서 먹는 반찬거리의 친환경성 및 웰빙 식품 소재로 활용하여 지역산물을 원재료로 만든 염장 또는 1차 가공식품을 장터에서 판매한다.

(4) 아침장터 운영

집에서 제조한 웰빙식품과 가공식품을 주민이 직접 판매하고, 조식식당 운영한다.

4) 지역생산물 이용한 음식축제**(1) 뭍국축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해녀들이 채취한 뭍(해초), 생태적으로 기른 흑돼지, 지역에서 생산한 채소 등을 이용하여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뭍국축제를 개최한다.

(2) 우미축제

여름에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천초를 활용한 우미축제를 연다.

(3) 당근축제

당근 수확이 끝나고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구좌의 상징인 당근을 활용한 축제를 연다.

(4) 해녀생태축제

해녀축제를 업그레이드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기획하고 참여하는 생태축제를 연다.

5) 기타**(1) 우마차 및 자전거 활용**

각 가름의 탐방 및 체험장소로 이동시 전통적 이동수단인 우마차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각 가름으로 이동하며, 주민학예사가 지역의 생태문화유산을 설명하면서 슬로우 투어리즘 체현한다.

(2) 예약형 생태체험관광

신청자에 한해 “햇바르” 야간 생태체험, 주민학예사 동반한 소규모 가족 및 청소년 생태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3) ‘해녀에코뮤지엄 로고’ 표식 부착

해녀에코뮤지엄 협회에 가입한 민박, 식당, 판매 등의 업소에 부착한다.

VI. 제언

에코뮤지엄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검토한 결과, 해녀에코뮤지엄 조성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지속 가능한 해녀에코뮤지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더불어 전문연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중앙정부(국토해양부) 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해녀에코뮤지엄 조성 초기 단계에서는 시설보다는 주민참여를 위한 견학, 설명회, 토론회, 교육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해녀박물관 운영팀과 주민학예사 등 인적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에코뮤지엄은 본래 취지가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박물관인 까닭에 해녀박물관을 조속히 완성하려 해서 안 되며, 해녀에코뮤지엄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프랑스 알자스에코뮤지엄이나 일본 아사히마치에코뮤지엄은 10년 이상에 걸친 지역유산 조사, 견학, 연구, 워크숍, 국내외 학술대회 등을 통한 결과물임을 유의해야 한다.

셋째, 해녀에코뮤지엄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새로운 시설을 하기 보다는 현재 있는 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극적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주민들에 대한 일시적인 경제적 지원보다는 그들이 주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갯담, 발담, 성담 등을 복원 또는 복구하는 인력은 외부 인력을 투입하기보다는 마을 주민 중 관련 일을 했던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다섯째, 해녀에코뮤지엄은 청정 이미지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해안으로 밀려드는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와 해안가로 유출되는 오수 정화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여섯째,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철새들이 도래하는 연안습지인 하도철새도래지를 해녀에코뮤지엄의 주요 자원으로 잘 보전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우선 관련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 하도철새도래지에 대한 정밀한 생태조사와 더불어 국제보호습지인 람사르습지로 등록해야 한다.

일곱째, 해녀에코뮤지엄은 기존 해녀박물관은 내용과 형식에서 전혀 다른 바 그에 걸맞은 조례 제정을 통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고광민, 『제주도포구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 구좌읍, 『구좌읍지』, 2000.
- 구좌읍연합청년회, 『구좌청년(창립20주년)』, 2012.
- 국립민속박물관, 『하도리 민속지』(제주민속조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국립민속박물관, 2007.
- 김성진, 『생태관광 진흥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연구원, 2002.
- 糸魚川淳二 外(編), <<瑞浪市化石博物館研究報告35 特輯[博物館-現在と未來]>>, 2009.
- 노시훈, 「에코뮤지엄 개념의 지속과 변화」『프랑스어문교육』제39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12.
- 송상조 엮고 지음(2008), 『제주말큰사전』, 한국문화사.
- 안재균, 「폐광지역 산업유산 보존을 중심으로 한 Eco-museum 계획 -태백시 철안동 석탄장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동의대학교씨랜트사업단, <<해녀복지증진 및 관광자원화>>, 국토해양부, 2008.
- 오오하라 카즈오키, 『에코뮤지엄으로의 여행』, 오혜자 역, 녹도출판회, 1999.
- 완도군, 『청산도 경관 가꾸기 매뉴얼』, 2011.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해녀생태박물관 조성연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2012.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해안을 가다』, 2004.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형 친환경 생태마을 조성에 관한 기초연구>>, 2007.
- 제주발전연구원, <<하도마을 종합발전계획>>, 2006.
- 제주특별자치도,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2009.
- 朝日町エコミューヅアム基本構想委員會, <<朝日町エコミューヅアム基本構想調査報告書>>, 1991.
- 좌경희, 「한국형 에코뮤지엄 정착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2009.
- 좌혜경 외, 『제주도 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 좌혜경, 「해녀 생태마을지정과 생태박물관의 가능성」 <<제주해녀의 재조명>>, 해녀박물관, 2011.
- 천진기, 『보존과 개발의 갈등 해결의 열쇠: 생태박물관의 이해』, 국립민속박물관, 2006.
- 하도향토지발간위원회, 『하도향토지』, 2006.
- 한재희, 「생태박물관 개념에 기초한 지역유산의 보존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 해녀박물관,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2009.
- 해녀박물관, <<제주해녀의 재조명>>(제주해녀학술심포지엄 자료 모음집), 해녀박물관,

2011.

해녀박물관, 『濟州海女史料集』, 경신인쇄사, 2009.

해녀박물관, <<해녀문화 전승보존의 과제와 전망>>(제5회 해녀국제학술심포지엄), 제주학회, 2010.10. 11

Georges Henri Rivière, "The Ecomuseum - an evolution definition," Museum (UNESCO).